

# 길을 묻는 이에게



대행스님

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  
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  
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  
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  
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 
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.  
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 
드립니다.

● 본필곳: 우 110-170  
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-33  
현대불교신문사  
"길을 묻는 이에게" 담당자 앞  
● FAX: (02)737-0697/8  
● PC통신: 인터넷부다피아  
http://www.budchapia.com/mem/ha  
nmaam

## 법공양 페이지

# “제 뿌리 말고 어디도 믿을 대상 없어”

### 17면에서 계속

보다는 요즘 말로 할 뿐이지요. 저는 요  
즘 사람입니다. 요즘 사람은 요즘의 말을  
해야지 어떻게 3천년전의 방편으로 말을  
하겠습니까?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 
지금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 
소용이 있을리구요.

그래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를 떠  
나서 허심탄회하게 궁금한 것을 묻고 ...,  
나를 위해서도 묻고 남을 위해서도 묻고  
대답하고 가는게 아니니까?

이렇게든 토론을 하는 것이지요. 우리  
가 살아가면서 별에 별 일을 다 겪고 보  
고 듣고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 
경우에는 자기가 될 줄 더 안다고 자만  
하고 때로는 그 위세가 당당해서 고개를  
뺏뺏이 드는 일도 있었지요. 그러나 그럴  
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익으면 익을수록  
고개가 더 숙여지는 법이니까 말입니다.  
물론 한창 뺏뺏하게 있을 때는, 그러니까

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'길을 묻는 이에게'  
를 읽으면서 늘 이 공부를 열심히 해  
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만 때로는 그만  
다짐을 잊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질문  
아닌 질문을 드립니다.

늘 공부다짐을 하신다니 감사하군  
요. 내가 어떤 때는 부처님 말씀에  
간단히 써 있는 것을 길게 풀어서 말하  
곤 합니다.

가령 '마음을 조복받는다' 이렇게만  
해놓은 것을 '안과 밖이 돌이 아니게 조  
복받는다'고 늘어 놓게 됩니다. 왜냐하면  
은요, 그냥 '조복받는다' 하면 모두에게  
감응이 오질 않을까 해서입니다. 그래서  
이렇게도 말하지요. '내면, 바로 내 자아  
중추에 처해서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이  
돌이 아니게 조복받는다' 해 놓으면 모든  
경계에서 자기 자신의 중심, 제 뿌리를  
진짜로 믿고 거기에서 매사를 슬기롭게  
감사하게 또는 골려서 밟긴다면 사례로  
다 통신이 된다 라고 말해드리는 겁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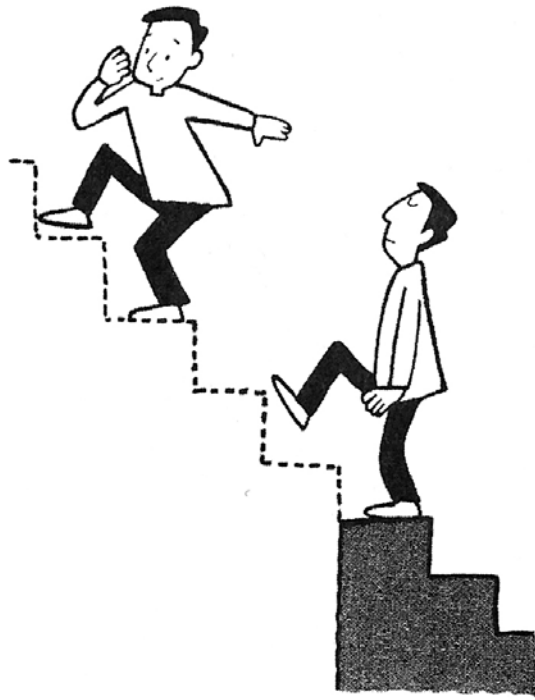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데 한 줄기가 '아이고 힘들어' 이란다면  
뿌리는 뭐라고 할까요? 모든게 뿌리에  
의해서 싱겁게 살기도 하고 잘못 섞기  
도 하는데 무조건 그 뿌리를 믿어야지  
가장구나 이파리가 걱정을 해한다고 믿  
이 달라졌습니까? 바람이 불어서 가지  
가 흔들린다 해도 뿌리가 든든하면 걱정  
할게 없지요. 그러나 뿌리를 안 믿고 뭘  
믿겠습니까? 그래서 제각기 내 마음의  
선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거기서  
자동적으로 다스려진다고 하는 겁니다.

그런데 그냥 이론적으로 되니 안되  
느니 한다든가 묵은 관념에 얽매어 이렇  
까 저렇까 한다면 도무지 중심이 잡히지  
않고 다스려지지 않게 되지요.

생각해 보세요. 나무가지가 뿌리를 외  
면하고 배를 탄 사람들이 선장을 못 믿  
어서 우와좌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 
땀물에 심봉이 딱 맞들려야 힘있게  
달릴 수 있는 것처럼 철쭉같이 믿어야  
한단 말입니다.

습니다. 스님께서는 주인공을 믿고 좋으  
라 하신다는 데 도움을 청하는 것은 '무  
엇이며 들어 주시는 도리는 무엇입니까?  
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을 아  
가장구나 이파리가 걱정을 해한다고 믿  
이 달라졌습니까? 바람이 불어서 가지  
가 흔들린다 해도 뿌리가 든든하면 걱정  
할게 없지요. 그러나 뿌리를 안 믿고 뭘  
믿겠습니까? 그래서 제각기 내 마음의  
선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거기서  
자동적으로 다스려진다고 하는 겁니다.

그런데 그냥 이론적으로 되니 안되  
느니 한다든가 묵은 관념에 얽매어 이렇  
까 저렇까 한다면 도무지 중심이 잡히지  
않고 다스려지지 않게 되지요.

생각해 보세요. 나무가지가 뿌리를 외  
면하고 배를 탄 사람들이 선장을 못 믿  
어서 우와좌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 
땀물에 심봉이 딱 맞들려야 힘있게  
달릴 수 있는 것처럼 철쭉같이 믿어야  
한단 말입니다.

### “본래 없는데 스스로 고통 만들죠 내마음의 컴퓨터 입력도 지우는 것도 자기가 하는겁니다”

아주 푸르렀을 때는 그러기도 하였지만  
푸르렀을 때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 
맺지 않습니다.

또 어떤 사람은 뭐 물어 볼 것도 없고  
당신이 무슨 대답을 할지도 다 안다고  
하는데 실사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그  
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  
로 토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. 흔히들  
말로 해서는 안되고, 안다고 해서 말을  
하면 잘못 된다고 하는데 글방이 말 했  
다가 저 말하고 그러는데 말하는 사이가  
있습니까? 그리고 혼자서 말 했습니까?  
해야 할까요?

내가 할 수 없는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 
모여서 말을 한 것이지 자기 혼자서 말  
한 것은 없습니다. 그래서 공했다 이런  
겁니다.

#### 불평 많은 직원들이 야속

한 회사의 증권간부입니다. 요즘  
은 경기가 극도로 나빠져서 회사  
형편이 아주 어렵습니다. 그런데 부하 직  
원들은 그에 이렇듯 못하고 개인사정  
에만 관심이 크고 요구사항도 여전합니  
다. 야속한 생각에 그들이 자꾸 미워합니  
다. 이런면 안되는데 하지만 김철이 앞서  
게 됩니다. 가르침 바랍니다.

요즘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잦대  
로, 자기 그릇으로 상대방을 저울질  
하거나 사물을 바라보는 편입니다. 그러  
나 상대방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실  
사 상대방이 좀 모자라다 싶어도 항상  
겸손하게, 동글게, 내마니 양게, 그쪽이  
모자라던 모자라는데도 내가 그와 하나  
가 되어주고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데  
로 그 쪽으로 들어가 준다면 항상 평등  
하고 원만하지 않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 
누구나 생각할 때에 좀 모자라는 사람이  
다 싶으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생  
각이 먼저 들게 되지요. 그런데 그럴 때  
마다 '그래, 저 모습은 내가 물질을 모르고  
살 때의 내 모습과 진배없구나! 이런  
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? 그럴 때  
에 저게 내가 모자라던 시절의 그 모습  
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면 바로 부드  
럽게 말이 나가고 부드럽게 행동했을 겁  
니다.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, 모자라던  
때의 자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. 그  
럴 것을 '어휴 저건 왜 저 모양일까' 하고  
모진 생각을 했다면 그냥 말이 모질  
어지고 행동에도 모가 나겠지요. 그러다  
가는 안 보면 좋겠다 싶고 상중하기도  
싫어지고... 그렇게 되고 말고요. 그러니  
까 아무리 사람을 하려해도 안되고 포용  
하려 해도 안될 겁니다.

지금부터라도 그 모습을 모자라던 때  
의 내 모습으로 돌리고 부드럽게 대해  
보세요. 그러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 
그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평등하고 원만  
해질 겁니다.

#### '공부 다짐' 잊을때 있어오

스님께서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  
시려고 애쓰시는데 대해 독자로서

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만 하신다면  
안과 밖이 다, 모자라는 건 채우고 넘치  
는 건 덜어내면서 자동적으로 잘 이끌어  
간다 이 말입니다.

어떤 분이 경험한 얘기입니다. 마침 큰  
회사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는데 돈 벌기  
에 딱 참다려하는 겁니다. 그런데 웬지  
내면에서 특 떨어지게 허락을 하지 않  
기에 투자를 포기했습니다. 주변 사람들로  
부터 바보같이 기회를 잘못 찬다고 핀잔  
을 들었지만 속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 
두 눈 막았고 포기했는데 얼마 안 있어  
몇 사람이 돈을 몽땅 가로채이는 사고가  
생겼다고 합니다.

그래서 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 
우리가 살면서 어디를 딱부러지게 믿  
을 데가 있다고 보십니까? 어디 하소연  
할 데가 있으요?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 
나를 이끌어가는 주인공, 자기의 뿌리를  
믿어라 이겁니다. 여러분들 속의 그 주인

아는게 다 헛것이다 이 말이지요.

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오신통을 한다하  
도 했다고 하지 말라, 자생증생들을 모두  
조복받고 오신통을 벗어나 오신통을 굴  
릴 수 있어야만 승인이 되고 자유자재하  
게 천백억 화신으로 나날 수 있는 니라  
고 하신 것입니다.

#### 가장 사람답게 살고싶어요

저는 금생에 불법을 만나게 된  
점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 
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  
도 다시 불법과 인연이 되기를 항상 바  
원하고 있습니다. 또 금생에는 사람으로  
태어났으니 가장 사람답게 살리라, 그리

바람도 가져 봅니다. 잘못된 건 아닌지  
요?

마음 쓰시는데 가장하군요. 어떤  
분의 얘기를 해드리지요.

그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차려놓  
고 지낼 형편이 못되려합니다. 그래서 생  
각다못해 호털로 가서 남이 잘 차려놓고  
잔치를 벌이는 자리에 들어가 짚을 세번  
떨어놓고 한탄이 세상 것을 다 차리는  
것과 바랄 수 없는 도리가 있습니다.  
왜냐하면 조상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  
나 부처님 마음이나 다 한자이기 때문  
이죠.

모두가 다 한 염주에 꿰어진 염주알이  
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넓어서  
결함이 없다면 조상님들도 결함이 없는  
거죠. 그러니 이 법이 얼마나 좋은 법입  
니까? 이 도리만 알면 위로 조상님들의  
목은 빛도 갈을 수 있고 아래로는 제가  
뿌려 놓은 씨앗에 빛을 줄 수도 있습니  
다.

#### 잘 말걸지지가 않아요

스님께서는 믿고 맡기라 하시는데  
그게 잘 되지를 믿고 그냥 답답하  
기만 합니다.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 
합니다.

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믿고 놓  
으라고 하셨는데 질문 드릴건 뭐가, 그렇  
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

그 힘들다는 생각도 놓으세요. 힘  
들게 믿어 있습니까? 보세요. 저 나  
무의 싹들은 무조건 제 뿌리에 의해서  
살고 있지요?  
가장구나 이파리도 마찬가지로요. 그런

흔히들 내 몸뚱이가 그냥 나인줄 아는  
데 이런 수많은 생명의 집합소이고 수많  
은 의식들이 동쳐있는 컴퓨터라고 할 수  
있지요. 그러니까 위로는 마음의 선장을  
모시고 아래로는 생명의식들을 거느리고  
사는 겁니다. 그냥 공생이고 공용이고 공  
체이지요. 나 혼자 한다, 나 혼자 산다는  
그런 말이 아닙니다.

전체가 한마음이다, 그러기에 어느 부  
품 하나가 빠져도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 
것처럼 전체가 다 같이 돌아가야 한다  
이겁니다. 그러므로 한마음 속에서 해결  
해라, 안되게 한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  
니라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한다, 그러  
니 일일해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.

아무튼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  
고 어렵다는 것도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  
면 시원한 건 안 나오고 잘되는 건 안  
나오느냐? 그게 아니겠습니까?  
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니까 내가

이 없는 가운데 참나에 일체재물이 들고  
나면서 응하고 나누어주는 도리가 있는  
겁니다.

#### 동료끼리 공부하다보니 불안

같은 직장동료끼리 몇명이 모여  
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  
데 도토리 키재기라고나 할까, 서로 비슷  
비슷한 수준이라서 서로를 이끌어 주는  
데 한계가 있습니다.

때로는 잘못되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.  
가르침을 바랍니다.

서로 서로 이끌어주니 그 공덕이  
적지 않군요. 그런데 공부에 특별한  
진전이 있기를 바라기 이전에 열심히 관  
(觀)하는 공부를 하세요. 너무 많은 것을  
알려 허거나 많은 말을 하지 마시구요.  
그러니까 이렇게, 예를 들어서 우환이  
있었다거나 병고 있었다거나 또는 가난하  
서 걱정이라거나 하는 아주 생활에 밀접  
한 문제들이 있다면 주인공! 너만이 낫  
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놓는 것 말입니  
다.

내 공부가 좀 떨어진다, 내가 좀 못  
다 싶으면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끔, 물  
리가 터지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너 밖에  
없잖아 하고 놓고가면 각자가 체험을 하  
게 될 겁니다.

아, 이렇게 하니가 이렇게 되느냐 하  
는 걸 몇번 체험하면 차츰차츰 이 도리  
를 알게 되거든요.

그러다가는 또 야, 이거 작은 일은 되  
는데 큰 일은 힘이 없어서 안될까 하  
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지요. 어떤 이  
는 내게 자기는 업장이 두꺼운지 공부  
가 되는 듯하다가는 그만이라는 얘기를 합  
니다.

그런데 그게 다 자기네들의 자유지요.  
그것도 좋으라고 했으니까요. 그리고  
업도 불을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  
다.

어떤 스님이 누가 깨닫는 길을 묻  
무명천을 건너야 한다고 했답니다. 그랬  
더니 무명천이 어디 있는냐고 수소문하  
고 다니더라요. 여러 해를 말입니다.

본래 불은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스  
스로 만들어서 업을 받고 애고를 당하고  
그러는 것 아닙니까? 어느 누가 구덩이  
에 빠지라고 했던가요? 어느 누가 죄를  
가져다 주길 했습니까? 결국은 자기들이  
만들고 자기들이 받으면서 사는데 내  
마음의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것도 자기  
요 새롭게 입력해서 지우는 것도 자기  
말입니다.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면서,  
잘 조절하면서 자기 뿌리를 믿고 발견하  
는 것이죠.

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  
기에 달려 있습니다. 구덩이를 만들어서  
빠지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 
것도 자기들이 할 탓이 이겁니다.

스님께 도움청하는 도리  
제가 듣기로는 많은 신도들이 스  
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

## 구덩이 빠지고 나오는 것도 제 자유

## 이몸은 공생 공용 공체의 생명 집합소

은 여러분들을 해롭지 않게 이끌어주고  
슬기롭게 이끌고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 
줍니다.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? 여러분  
들이 이것을 믿으시면 스스로 그렇게 됩  
니다.

#### 불자가 막행막식 할때...

불자라면 모름지기 행이 가지런해  
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주  
변을 보면 제간에는 독실한 불자라고 하  
면서도 술 마시고 막행막식의 분들이  
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그들을 바르게 제  
도하지 못하는 제 능력이 안타깝습니다.  
스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

생활속에서 그렇게 실천이 제  
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 
이끌만큼 무르익지 않았고, 제 몸뚱이 속  
의 증생들을 제도하지 못했기에, 조복받  
지 못했기에 그렇고, 남들의 모습이 부  
처님 모습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.

그래서 알기만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.  
왜냐? 참나참나에 천차만별로 바뀌면  
서 나투는데 어느 것 할 때에 내가 했다  
고 할까 하는 그 뜻을 모르고 때문이지  
요.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닌  
게 하나도 없느니라 했는데 천차만별로  
내 속에 들어있는 증생들을 제도하지 못  
했으니 그게 어디로 가나요?

그 속에서 나오는대로 그냥 그럴 수 밖  
에요. 그러니 아는게 아무리 많아도 소용  
이 없게 되는 겁니다. 지식이 많고 달달  
원대 해도 다리 병신이나 한발짝을 제  
대로 떼어놓지 못하고 귀가 막았으니 듣지  
못하고 눈이 멀었으니 못 본다, 그러므로

고 눈금을 때 후회가 없도록 하리라는  
염원을 갖고 있습니다. 도움 말씀을 부탁  
드립니다.

너무 많이 알려고 하고 이것 저  
것 자주 생각을 하면 더됩니다. 오  
히려 좀 어리석은 듯, 무식한 듯 그냥 들  
어주세요.

오로지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돌이  
아니다 믿고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행  
을 그냥 따르는 겁니다. 본래가 돌이 아  
니라는 걸 믿고 내 마음 가운데서 절로  
계할이 되도록 행을 하면서, 관(觀)하면  
서 그냥 믿고 들어가세요.

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중  
지를 이렇게 저렇게 벌여 놓았다가 모아  
놓았다가 했지만 그 뜻을 모르고 일일이  
쫓아가다가는 어느 때에 깨우치세요? 기  
독교는 타의에서 구하는 도이지만 하나  
로 뭉쳐 놓았는데 불교는 너무 해쳐 놓  
아서 믿음이 푼뚝 중쳐지질 않아요. 그러  
니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겠다는 생각,  
안다는 생각을 다 놓고 부처님 마음과  
내 마음이 돌이 아니라는 뜻 하나만을  
믿고 들어가도록 하세요.

#### 제삿상이 빈약해 죄송

며칠 전에 돌아가신 조상님의 제  
사를 모셨습니다. 다른 집과 달리  
제 경우는 혼자서 모든 조상님들을 모셔  
야 합니다. 그런데 요즘은 형편이 좋지  
못해서 상차림이 빈약해졌습니다. 그걸  
영 마음에 걸립니다. 내년엔 더 잘 모실  
수 있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해  
봅니다. 절에서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